“오만한 왕이여, 나의 패배다. 허나 우리들의 의지는 네놈의 전리품이 되기를 거부한다. 내가 손 댄 것은 태초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니 그대 또한 불만을 가지지 말지어다. 땅에 굴을 파 스스로의 무덤 자리를 만들어라. 나, 엘레니아가 살아간 이상 테네프의 바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래 전에 죽은 제 언니의 유언을 읊는 일레인은 아주 잔잔하기 그지없었다. 눈 앞으로 다가온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듯이. 요정의 말은 이제 고언을 넘어 이제는 사어가 되어버렸을 정도다. 스스로를 제법 똑똑하고 학식이 높다 자부하던 실리카였으나 이번만큼은 그녀도 유언의 뜻을 전부 알아차릴 수 없었다.

‘테네프의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 소리야… 저주 같은 것만 아니면 좋겠네, 어휴…’

실리카는 절대 모르는 티를 내지 않고 눈만 도르륵 굴려 주변을 훑어보았다. 대다수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인 듯 시선 속에 의아함과 불안함을 담고 있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황제는 노여움을 숨기지 못하며 이를 갈았다. 실리카는 물론, 황제가 데려온 나머지 11명 모두 황제의 이러한 모습을 처음 목격한 셈이었다.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레인은 여전히 표정 없이 거리를 벌려 유령처럼 미동 하나 하지 않았다. 황제는 악녀가 남긴 사언의 유언을 이해한 것일까? 이해했다면 어떠한 부분이 그를 진노케 한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숨만 붙여놓아.”

황제는 분노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뛰어난 포획 실력을 가진 기사와 마법사, 그리고 마도공학자에게 손짓했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그들은 황제의 손짓에 다시 현실로 끌려온 듯, 제 본분을 깨달으며 힘없고 연약한 일레인 벨칸스 한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나머지 군인들도 익숙하게 태세를 갖추고 황제를 엄호하며 상황을 살폈다. 황제는 심부름꾼을 찌른 피범벅의 검 대신 검집 안쪽에 소중히 보이지 않게 숨겨둔 중간 길이의 다른 검을 꺼내어들었다. 짙은 자색의 보석이 장식된 화려한 검은 황제의 맨손과 감응하여 아주 짧은 시간 불길한 빛을 반사했다. 황제의 자안과 일레인의 녹안이 시선을 부딪히며 서로의 생각을 읽었다. 악녀의 동생은 각오를 이행했다. 움직임 없이 가만히 서있던 일레인은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여 목에 걸린 레니에스 묵주 목걸이를 한 손으로 꾹 쥐었다. 그러자 그녀 주위로 강한 마력의 흐름이 느껴졌다. 낡은 종이처럼 꿉꿉하게 내려앉은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적의가 교회의 내진을 가득 채웠다.

“위험해요!”

“이런… 폐하를 제대로 보호하게!”

황제의 군사들보다 빠른 사람은 일레인이었다. 그녀는 마탄총이 제 팔을 관통하기 무섭게 목에 걸린 묵주 목걸이를 뜯어 자신 위로 장식된 커다란 신의 조각상을 향해 던졌올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흑마법…!’

실리카는 본능적으로 커다란 물의 장막을 펼쳤다. 상당한 마력을 소모하는 찬란한 물의 방어벽이 황제와 그 주변 사람들을 견고하게 감쌌다. 과연 황제가 친히 선택하여 데리고 올 만큼 강한 마력이었다. 그녀를 도와 동료 마법사가 함께 중첩적인 방어 마법을 시전한 덕분에 아마 큰 사상자는 없을 터였다. 건물의 일부가 부숴지며 나는 먼지가 실리카의 코 끝을 간질였지만 긴장한 탓에 재채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조각상과 부딪힌 묵주 목걸이는 마치 폭탄처럼 터져 사방으로 파편을 흩날렸다. 실리카는 부숴진 조각상의 가장 큰 파편이 일레인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한순간을 눈에 담았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양 경건하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떨어지는 파편을 받아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관통이 당한 상체, 불편한 하체… 조각상의 파편은 자비 없이 일레인의 몸을 산산조각 내어 살아있기 어려운 몰골로 만들었다. 내진 바닥에 쌓인 조각의 파편 아래로 불그스름한 흔적이 시야에 들어왔다. 실리카는 어쩐지 역한 기분을 느끼며 입을 삐죽 내밀고는 현장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벨칸스를 놓친 황제의 노성이 울려퍼졌으나 실리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02.

근교의 부드러운 바람과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금발에 가까운 밝은 갈색 머리카락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결에 한 두 가닥씩 산들산들 흔들렸다. 머리카락의 주인은 그제서야 깊은 잠에서 깨어나 힘겹게 정신을 차렸다. 여기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다른 사후세계인가? 의심하기도 잠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림자처럼 거울 앞에 섰다.

‘에밀리가 보았다면 신이 기적이니 뭐니 난리를 쳤겠네요.’

한참 거울 안의 스스로를 구경하던 이는 탁상 위에 올려진 작은 달력을 들어올렸다. 달력은 엘하임 1375년의 봄 한가운데를 가리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때를 떠올려보았다. 1374년의 겨울… 갑작스럽게 찾아온 황제와 그의 실력 좋은 열 두 군인과의 대치였다. 승산이 없는 마지막 순간, 악녀의 동생이자 마지막 벨칸스의 핏줄은 스스로 신의 조각상 아래 깔려 죽는 것을 택하였다. 언니의 유품을 지키고 생포당하여 더러운 꼴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아무리 태연한 그녀라도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뼈가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건조하고 살을 에일 듯한 기억이 어제의 일마냥 생생했다.

“정말로 살아났구나.”

신의 기적일까? 혹은 자신도 모르는 흑마법으로 묘한 사술을 부린 걸까? 일레인 벨칸스는 남의 몸을 차지하여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다. 그것도 벨칸스와는 눈꼽 만큼의 인연도 없는 적당한 귀족 집안의 여식으로서의 다른 생을! 일레인이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은 ‘언니의 유품’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일레인의 생전 알던 이에게 마법을 이용한 비밀스러운 전언 하나를 보냈다. 전언을 보내는 내내 걱정으로 손이 떨렸다.

두 번째 행동은 첫 번째에 비해 다소 가볍고 흥미진진했다. 바로 자신이 누워있던 장소를 샅샅이 뒤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방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밀라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밀라가 자주 읽던 책의 메모 등도 발견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 사람을 대강 파악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다.

“밀라… 레첸스 자작가의 밀라 레첸스 영애라고 하는군요. 나이는 아마도 23세... 제가 딱 도망다니기 시작할 나이랑 같네요.”

누가 들으면 큰일날 법한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며 일레인, 아니 밀라는 방을 한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아프지 않은 다리는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 허나 기분이 붕 뜬 듯이 나쁘지는 않았다. 한참을 설레어 하고서야 그녀는 스스로가 상당히 들떠있음을 깨달았다. 부끄럽게도. 민망함을 느낀 탓일까, 밀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단시간만에 밀라가 아닌 일레인이 다시 방 안에 들어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자신이 긁어모은 정보를 하나하나 곱씹기 시작했다.

“약혼자가 있었으나 사망했기에 미혼이며, 여기는 자작가의 본 저택이 아니고… 음… 본래의 밀라 레첸스는…”

밀라의 옛 일기장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으로 갈수록 엉망진창으로 찢기고 내용조차 띄엄띄엄 하여 알 수 없는 꼴이 되어있었다. 자신이 어쩌다 이 귀족 아가씨의 몸에서 깨어났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듯했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밀라 레첸스의 몸이었을까? 그저 우연일까? 밀라가 한참 여러 골치 아픈 생각에 빠져 있을 무렵. 똑똑, 두 번의 활기찬 노크와 함께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노크 소리에 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문을 두드린 듯한 행동이었다.

‘사용인인가요? 이 집의 사용인은 고용주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여는군요…?’

밀라는 언짢은 듯 한쪽 눈썹만 삐딱하게 세우며 무표정으로 문짝을 바라보았다.

“좋은 오후에요 아가씨…! 오늘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날씨가 좋아서 기뻐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가씨도 곧 일어나실 거 같… 어?”

“… …”

“아…!”

노크의 주인이자 밀라를 보살피는 하녀 라일라는, 시원하게 문을 열어제낀 후에야 방 안의 ‘아가씨’가 눈을 뜨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녀 라일라는 들고 있던 수건과 작은 바구니를 요란스럽게 테이블 위로 밀어두며 허겁지겁 밀라의 앞으로 다가섰다. 놀라움 반, 안도 반이 섞인 라일라의 호들갑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 아가씨, 정말 일어나신 건가요? 설마 제가 꿈을 꾸고 있다거나…”

“꿈은 아니에요.”

제 손을 꼭 붙든 채 두 눈 가득 걱정을 담아 눈물을 글썽거리는 라일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밀라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여름 햇살에 잘 말린 포근한 이불에 아무 근심 없이 둘러 쌓인 기분이었다. 라일라가 떠드는 모습을 한참 듣고만 있던 밀라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나 오래 누워있었나요?”

“네 달이 조금 넘었어요, 아가씨. 네 달 동안이나 눈을 뜨지 않아서 레첸스 자작님도, 집사님도… 저도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네 달… 여기는…?”

“레반 부인의 별장이에요. 아가씨의 회복을 위해 레반 부인이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가씨가 좋아하던 곳이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말 많은 라일라를 통해 대략의 정보를 얻어낸 밀라는 재빨리 생각을 끝마쳤다. 일레인이 밀라의 몸을 대신하여 움직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기억까지는 이어받지 못하였다. 대화나 상황, 기록물로 한 사람을 온전히 유추하는데도 분명 한계가 있었다. 분명 곤란한 상황이 올 터였다. 당장 밀라 자신의 눈 앞의 친절한 하녀조차 못 알아보는 상황 아닌가?

‘네 달이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병이든 사고든 무언가가 사연이 있는 아가씨라…’

기억 상실인 척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대충 그러한 아이디어가 밀라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표정을 가다듬고 살포시 시선을 내렸다. 단정한 밀라의 얼굴 위로 일레네였을 시절의 우울하고 온기 없는 표정이 내려앉았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가씨…”

“죄송해요, 저… 그쪽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밀라 레첸스인거죠?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밀라의 혼신 들린 연기에 깜빡 속은 라일라는 세상이 무너진 얼굴을 하며 입을 벌렸다. 양심이 따끔거리는 것을 모른체하며 밀라는 끝까지 모르쇠로 기억을 잃어버린 연기를 했다. 밀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닌 셈이었다.

“어쩌면 좋아… 가엾은 밀라 아가씨… 이, 일단 저는 라일라에요. 아가씨를 10년 넘게 돌보아온 사람이고요.”

“…라일라 씨.”  
“씨라니요, 라일라라고 부르세요. 아가씨는 저를 이모처럼 편하게 여기셨는 걸요. 신도 우리 착한 아가씨에게 너무하시지…”

라일라는 앞치마로 눈가의 눈물을 콕콕 찍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럴 때가 아니라… 그,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을 부르고 레첸스 자작님께 연락을 보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될 만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가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이 라일라가 옆에서 떠나지 않고 보살펴드릴 테니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말아주세요.”

예상치 못한 상냥한 대답에 밀라는 더더욱 말문이 막혔다. 사실상 그녀가 잘못한 일은 없었으나 어쩐지 정말로 큰 도둑질을 한 것처럼 마음 한 구석이 무겁게 짓눌렸다.